

‘수식’을 통해 제기된 인간에 관한 몇 가지 물음 - 『지하에서 쓴 수기』, 『1984』, 『페스트』를 중심으로*

신 정 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수학과 교수)

최 용 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수학과 교수)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 우리가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는 표도로 미 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에서 쓴 수기』와 조지 오웰의 『1984』, 그리고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에서 제기되는 인간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이 세 작품에 공히 등장하는 수식이다. 즉, 『지하에서 쓴 수기』에 등장하는 2×2 와 『1984』와 『페스트』에 등장하는 $2+2$ 가 그것이다. 『지하에서 쓴 수기』에서 $2 \times 2=4$ 라는 수식이 수정공으로 대변되는 이상사회의 건축 원리를 가리킨다면 $2 \times 2=5$ 라는 수식은 이 사회에 가해진 저주, 다시 말해 인간의 탈구축적 욕구를 나타내는 언어행위를 상징한다. 『1984』에서 $2+2=4$ 라는 수식은 $2+2=5$ 를 강요하는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맞선 인간 정신을 대변한다. 『페스트』에 등장하는 $2+2=4$ 라는 수식은 하나의 진리이지만 이 진리는 결정되는 순간 평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지하에서 쓴 수기』에서 $2 \times 2=5$ 라고 외치는 인간은 목적의 실현을 미루거나 실현된 목적을 파괴함으로써 삶의 과정에 역사성을 다시 부여하는 존재다. 『1984』에서 $2+2=4$ 라고 대답하는 인간은 비록 실패로 끝날지언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적 존재다. 『페스트』에서 $2+2=4$ 라고 결정한 인간은 이 결정에 충실한 존재다. 이 세 작품에서 인간은 목적을 과정으로 되돌리거나 과정에서 인간성을 드러내거나 진리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충실하거나 간에 모두 과정의 존재들이다. 수식이라는 하나의 문제 공간에 등장한 과정으로서의 인간은 끊임없이 자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신의 역사를 다시 쓰는 무한하게 유한한 존재에 다름 아니다.

주제어 : 지하에서 쓴 수기, 1984, 페스트, 인간, 토포스, 수식

1. 들어가며

우리가 이 논문에서 서양문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세 작품, 즉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y)의 『지하에서 쓴 수기』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 그리고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페스트』를 비교 분석하면서 살펴보고자¹⁾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에 대한 물음이다.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이 물음이 제기되는 맥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유전자가위, AI,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변되는 기술과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도래한 이른바 포스트휴먼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인간 혹은 인간성에 대한 질문이 그 첫 번째 맥락이다. 마치 포스트휴먼 시대에 이르러 휴먼의 아우라가 선명해지기라도 한 것처럼²⁾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의 품격과 인간 위격의 고양을 위한 논의가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물음의 배경에는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수명 연장과 능력 증강에 대한 욕구가 기술과학의 발전과 맞물려 자연인으로 태어난 인간도 중국에는 일종의 사이보그가 될지 모른다는 실존적 불안이 존재한

1)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세 작품의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지하에서 쓴 수기』, 김근식 옮김, 창비, 2012; 조지 오웰, 『1984』, 정희성 옮김, 민음사, 2003; 알베르 카뮈, 『페스트』, 김화영 옮김, 민음사, 2011. 이후 이 세 작품에 대한 인용은 별도의 각주 없이 인용문 뒤 (p.x)로 표기하기로 한다.

2)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사진과 영화라는 기술복제 예술의 등장이 아우라의 소멸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뒤집으면 오히려 기술복제 예술이 전통 예술에 아우라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오늘날 휴먼에 모종의 아우라가 부여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포스트휴먼의 등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사진의 작은 역사 외』, 최성만 옮김, 길, 2017.

다.) 이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늘 수반됐던 소외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제기되는 휴먼의 문제는 이처럼 근대화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상술한 과학적 유토피아가 초래할 디스토피아적 전망은 이 물음의 또 다른 맥락을 구성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전체주의 사회의 도래와 무관하지 않다. 19세기에 공상적 혹은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기획됐던 이상사회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결국 전체주의로 귀결됐다는 점은 고도의 기술과학에 기초한 미래사회가 과연 어떤 정체(政體)로 그 모습을 드러낼 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이런 점에서 근대의 기획으로서 계몽이 야만을 자신의 구성적 요소로 포함하고 있음을 역설한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의 『계몽의 변증법』은 초고도 지식 정보화시대에 돌입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비판으로 읽힐 수 있다.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맥락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인간의 조건』 첫 머리에서 지적한 전(全)지구적 차원의 대재앙 가능성과 관련된다.⁵⁾ 당시 아렌트가 염두에 둔 것은 핵폭탄에 의한 인류의 전멸이다. 오늘날 핵 위험은 사라지기는커녕 전 방위적으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환경 재앙의 가능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 조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물음의 형식으로 간추려 보자면, 앞서 기술과학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제기되는 물음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압축되고, 전체주의의 위험 앞에서 제기되는 물음이 '인간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인류의 대재앙이라는 임박한 상황 속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아마도 '인간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우리

3) 국내에서는 2015년 한국포스트휴먼학회가 창립되었으며, 이듬해인 2016년 포스트휴먼사이언스의 지속적 연구 진흥을 위해 한구포스트휴먼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두 기관에서 발간하는 포스트휴먼사이언스 총서 중 첫 번째 책인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은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저,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아카넷, 2016.

4) 막스 호르크하이머, 테오도르 W.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1.

5)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한길사, 2017.

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 작품은 모두 절대적인 힘에 맞선 인간의 투쟁에 관해 서술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테마를 공유하고 있다. 이 절대적인 힘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에서 쓴 수기』에서 수정공으로 대변되는 과학적 이상사회로 제시되고, 조지 오웰의 『1984』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전체주의로 나타나며, 카뮈의 『페스트』에서는 인류에게 닥친 대재앙으로 형상화된다. 이 세 작품에는 이러한 절대적 힘에 맞서 저주하거나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비록 투쟁의 양상은 세 작품 속에서 각각 다르게 전개되지만 이들을 함께 묶어 동시에 읽을 때 각각의 고유한 테마가 서로 변증법적 방식으로 물음을 제기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풍요로운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비교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우리의 작업가설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기 위해 주목한 것은 바로 세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수식이다. 즉, 『지하에서 쓴 수기』에 등장하는 2×2 , 그리고 『1984』와 『페스트』에 공히 등장하는 $2+2$ 가 그것이다.⁶⁾

6) 주지하다시피 수식은 근대 이후 철학이나 문학 작품에 빈번히 등장하여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어왔다. 이를테면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식을 언급한다. “내가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간에, 둘에 셋을 더하면 언제나 다섯이고, 사각형은 네 변밖에 가지지 못하므로 이렇게 분명한 진리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르네 데카르트, 『성찰』,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7, p.38) 그런가 하면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수학적 진리가 분석적 판단이나 종합적 판단이 아니라 이른바 선험적 종합판단에 속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 $7+5=12$ 라는 등식을 예로 든다. 한편 수식은 문학 작품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오노레 드 발자크(Honoré de Balzac)는 소설 『세라피타』에서 자연 속에는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2+2$ 가 결코 4가 될 수 없음을 역설하면서 자신의 사실주의 문학관을 옹호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빅토르 위고(Victor Hugo)는 『꼬마 나폴레옹』에서 제2제정의 전제군주를 향해 “ $2+2=4$ 다. 두 점 사이에서 직선은 최단거리다. 부분은 전체보다 작다. 자 이제, 칠백 오십만의 입으로 $2+2=5$ 라고, 두 점 사이의 최장거리가 직선이라고,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고 선언하도록 해봐라. 팔백만, 천만, 일억의 입으로 그렇게 선언하도록 해봐라. 당신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외친다.(Victor Hugo, *Napoléon le petit*(1851), « ebooks libres et gratuits », p.210) 이처럼 수식은 데카르트와 칸트가 과학적 진리의 확실성을 예시하고자 했을 때, 발자크가 문학적 진리의 존재 양태를 서술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위고가 정치적 진리의 공간을 열고자 했을 때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수식의 사용은 수사학적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이점을 지닌다. 우선 간단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2=4$ 는 철학적이든 문학적이든 정치적이든 복잡한 논변을 간략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 강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프로파간다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한 전달력과 호소력을 지닌다. 소련에서 생산성 향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전하기 위해 홍보용 전단에 $2+2=5$ 라는 슬로건을 사용한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든 몇 가지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수식은 그것이 동일할지라도 세기마다 작가마다 작품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세 작품에서도 수식이 갖는 이러한 장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수식은 단순히 수사적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작품 해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 작품을 묶어서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각각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식이 인간과 인간성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문제 제기적 지점, 말하자면 하나의 '토포스(topos)'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토포스'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연원한 개념이다. 유감스럽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탓에 오늘날까지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개념이 수사학 분야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사실 수사학은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관련 연구 목록을 살펴보면 토포스와 토포스학/장소론(Topique)에 대한 연구는 중세 연구가들에 의해 비교적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것이 확인된다.⁷⁾ 그 중에서 본 논문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밀러(Carolyn R.

는 근거가 되어 주었다.

7) 그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Ernst Robert Curtius, *European Literature and the Latin Middle Ages*, translated by Willard R. Trask, Harper Row, 1953; Wilhelmus Antonius de Pater, *Les topiques d'Aristote et la dialectique platonicienne. La méthodologie de la définition*, éd. St. Paul, 1965; Niels Jørgen Green-Pedersen, *Tradition of the Topics in the Middle Ages*, Philosophia Verlag GmbH, 1985; Robin Smith, *Topics Books I and VIII: With Excerpts From Related Texts*, Clarendon Press, 1997.

Miller)가 2000년 발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포스: 새로움의 사냥」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제안한 토포스 관련 논의다.⁸⁾ 밀러는 이 논문에서 ‘inventio’의 수단으로서의 토포스가 수사학 전통에서 기존에 이미 알려진 것의 ‘발견(discovery)’이라는 제한적 의미로만, 이를테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상투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어 왔음을 비판한다. 이와 다르게 그는 토포스가 기존에 알려진 지식뿐만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식을 ‘발명(invention)’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토포스는 상투어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 공간(problem space)”⁹⁾으로 이해될 때 그 제한적 의미를 넘어서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2×2 와 $2+2$ 의 수식은 인간에 관한 물음을 묻는 문제 공간으로서 충분히 하나의 토포스로 접근 가능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세 작품에 공히 등장하는 수식, 즉 인간에 대한 물음을 가능케 하는 토포스다. 따라서 우리는 이어지는 장에서 2×2 와 $2+2$ 의 수식을 중심으로, 달리 말해 공통의 문제 공간을 중심으로 『지하에서 쓴 수기』, 『1984』, 『페스트』를 차례로 읽어가면서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물음을 입체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2. ‘ 2×2 ’와 ‘생쥐 인간’

도스토예프스키가 43세 되던 해 집필한 『지하에서 쓴 수기』는 무엇보다도 1863년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Nikolai Chernyshevskii)의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제시된 이상적 사회¹⁰⁾에 대한 비판이자 패러디로 읽힌다. 러시아 혁명가 체르니셰프스키가 이 소설에서 합리적 에고이즘과 과학

8) Carolyn R. Miller, “The Aristotelian Topos: Hunting for Novelty”, in *Rereading Aristotle’s Rhetoric*,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0.

9) *Ibid.*, p.141.

10)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 『무엇을 할 것인가?』(상),(하), 서정록 옮김, 열린책들, 2009.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사회주의 지상 낙원에 대한 구상을 펼쳐보였다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은 사회주의 이상 사회가 상정하는 '새로운 인간'과 수 정궁으로 묘사되는 과학적 이상주의에 대한 '너무나 인간적인' 저주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관 혹은 인간관을 전반 적으로 다루는 일은 본 논문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임은 물론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앞서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하에서 쓴 수기』에 등장하는 수식에 집중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지하 생활자의 말과 삶을 통해 환기하고자 했던 인간에 대한 물음, 말하자면 인간성의 본질을 우리가 '인간학적 환원(réduction humanistique)'¹¹⁾이라고 명명하고자 하는 방식을 통해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하에서 쓴 수기』에서 과학과 인간의 갈등은 간단한 수 식으로 표현된다. 요컨대 과학이 $2 \times 2 = 4$ 라는 공식으로 요약된 입장을 대변 한다면, 인간은 $2 \times 2 = 5$ 라는 외침으로 이에 맞선다. 하지만 『지하에서 쓴 수 기』의 화자는 이러한 입장에 대한 세간의 반론 가능성을 의식하면서 “그런 데 이 모든 것이 해명되고 종이 위에 계산된다면”이라고 자문한 다음, “이 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간이 어떤 자연법칙은 도저히 알아낼 수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역겹고 무의미하기 때문”(『지하에서 쓴 수기』, p.48)이라고 덧붙이면서 인간적 외침에 대한 한계를 예감하고 있다. 『지하에서 쓴 수기』 는 이러한 예감을 이른바 '인간학적 환원'의 과정을 통해 그 극단까지 밀어 붙인다. '인간학적 환원'이란 인간에게서 계산 가능한 것을 하나씩 걷어냄 으으로써 궁극적으로 계산 불가능한 것에 이르고자 하는 일종의 사고실험을

11) 현상학적 환원이란 사물 자체에 접근하기 위해 이 사물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괄 호에 묶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의식에 나타나는 것이 곧 현상이고 이를 기 술하는 것이 현상학이다. 독일의 촉망받는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Markus Gabriel)은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저서에서 대상 영역에서 언어적인 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존재론적 환원'이라 부를 것을 제안한다. “먼저 특정 조건 아래서, 전체를 그려 보는 세계관으로부터 대상 영역을 하나씩 지워 나가면 어떻 게 될까 관찰해 보기로 하자. 나는 이런 작업을 존재론적 환원이라 부른다. 존재 론적 환원이란 걸보기에는 대상 영역 같았던 게 장광설에 지나지 않는 <언어 영 역>임을 밝혀내는 일이다.”(마르쿠스 가브리엘,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김 희상 옮김, 열린책들, 2017, p.64.) 우리가 여기서 제안하는 '인간학적 환원'이라는 개념은 이와 유사한 철학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에게서 계산 가능한 것을 모두 걷어내 환원 불가능한 인간적인 것에 이르고자 하는 사유의 작업이다.

가리킨다. 이미 이 작업의 결과는 $2 \times 2 = 5$ 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식에 이르는 과정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먼저 『지하에서 쓴 수기』의 화자는 인간을 크게 활동가와 사색가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직접적이고 직선적인 인간들과 활동가들”(p.32)이 포함 되는 전자는 “자연과 진리의 인간”이고 후자는 마치 “자연의 소산이 아닌 어떤 시험관에서 나온 듯한” “생쥐 인간”(p.21) 곧 지하생활자다. 화자에 따르면, 자연과 진리의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정상인을 가리킨다. 이때 인간의 행동은 인간학적 환원에 의해 근원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식에 종속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행동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안심할 수 있어야 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기”(p.32) 때문에 활동가는 자신의 행위에 신증을 기하기 위해 계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하생활자는 이들을 “신경이 둔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이런 사람은 어떤 때는 황소처럼 무지막지하게 돌진해서 대단한 명성을 얻을 때도 있지만, 내가 이미 말했듯이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면 곧바로 굴복한다. 그 벽이 돌벽을 의미할까? 그 돌벽이란 당연히 자연법칙, 자연과학의 결론, 수학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었다는 설이 증명된다면, 우리는 눈살을 찌푸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증명된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p.23) 자연과 진리의 인간은 과학적 증명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무엇이든 증명되지만 한다면 지체 없이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연과 진리의 인간은 $2 \times 2 = 4$ 라는 수식 앞에 무릎을 꿇고 만다. 화자는 이들을 “우둔한”(p.20) 자라고 비난한다.

반면 생쥐 인간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이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돌벽을 무너뜨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힘이 모자란다는 것이 돌벽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불가능한 모든 것과 돌벽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의식”하면서, “불가능한 모든 것과 돌벽에서 역겹게 생겨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p.24) 않는다. 달리 말해 “온갖 것을 의식하고 수치스러워”(p.28)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p.65)을 선택하는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사색가를 현명한 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지점에서 인간학적 환원이 한 번 더 이루어지면서 사태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된다. 지하생활자의 말을 들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안심시키는가? 내가 받들 일차적 명분은 어디 있는가? 그러한 나의 근거는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어디서 그런 명분을 찾을 수 있을까? 사색하는 훈련을 통해 최초의 명분보다 더 근원적인 명분을 항상 찾게 되다 보니 최초의 명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온갖 의식과 사색의 본질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바로 자연법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역시 똑같은 결과다.(p.32)

지하생활자의 논리에 따르자면, 활동가와 사색가의 구분 기준은 행위다. 행위는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 가능하다. 하지만 사색은 사색가의 변덕에 의해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러한 변덕도 자연법칙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 화자의 놀라운 통찰이다. 따라서 이 구분은 좀 더 세공될 필요가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명분은 “인간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 명분에 따라 행동하거나 사유한다는 것은 이익에 따라 행동하거나 사유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하에서 쓴 수기』의 화자는 사색가의 사유를 이성과 욕구로 다시 세분한다. 인간의 이익이란 이를테면 “행복, 재산, 자유, 평안 같은 것이다.”(p.39) 화자에 따르면 이러한 이익에 대해 사람들은 “통계적 수치 내지 경제학적 공식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익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위 통계학자, 현자, 박애주의자가 인간의 이익을 계산할 때 딱 한 가지 이익만큼은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p.40) 그것은 다름 아닌 욕구와 관련된 이익이며, 이는 다른 이익과는 달리 계산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화자가 전개한 인간학적 환원이 여기서 멈췄다면 그가 지하에서 쓴 수기는 평범한 주장에 그쳤을 것이다.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는 있어도 이 기계가 욕구나 의지를 품을 수는 없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인간성을 옹호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지하에서 쓴 수기』의 화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는다. 다시 말해 이 지점에서 또 한 차례의 인간학적 환원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는 “언젠가 우리의 욕구와 변덕의 공식들을 제대로 찾아낼 때, 다시 말해 그 욕구와 변덕이 무엇에 달려 있는지,

즉 우리 내면의 어떤 법칙에 따라 그게 발생하여 어떻게 확산되고, 상황에 따라 지향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낼 때”(p.48)가 도래할 수 있음을 가정 한 후, 그때가 되어서도 결코 계산 가능한 것으로 환원되지 않을 인간성의 고갱이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사실 『지하에서 쓴 수기』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과학과 인간의 대결, 활동가와 사색가의 반목, 이성과 욕구의 길항은 종종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대립으로 번역되고, 그 결과 ‘젖은 눈에 얽힌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작품의 제2부는 내용상 결정론에 굴복한 것으로 읽히며 자유의지의 테제를 강변한 1부의 반명제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¹²⁾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지하에서 쓴 수기』의 화자가 인간학적 환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이율배반이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결정론에 대한 인간의 욕구, 즉 자유의지가 갖는 비합리적인 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목적을 향해 나가면서도 이 목적의 성취에 대해 모종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되는데, 하나는 구축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구축적인 것이다. 우선 구축적인 의지, 욕구는 하나의 정해진 목적을 향해 부단히 전진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화자의 말을 인용해보자. “나는 여러분의 말대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창조적인 동물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토목공사에 매진한다. 여러분이 말하기를 인간은 끊임없이 길을 닦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한다.”(p.57) 화자가 원칙적으로 동의하듯이 창조적인 동물은 이처럼 구축적인 자유의지를 행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때때로 그가 동시에 “건물의 완공을 본능적으로 두려워”(p.58)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지하에서 쓴 수기』의 화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의 개인적 견해지만, 오

12) “[...] 도스토예프스키는 결정론에 반기를 들면서도 동시에 자유의지에 대한 확신을 유보한다. 『지하로부터의 수기』 제 2부는 결정론 딜레마의 뒤집힌 버전, 곧 자유의지의 딜레마를 요체로 한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지하생활자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는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난다. 그는 ‘자연의 법칙’의 노예일 뿐이다.”, 석영중,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와 신경과학자: 자유의지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 41집, 2012, p.41.

직 행복 하나만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좋은 나쁜든 간혹 무언가를 박살낸다는 것 역시 기분 좋은 일이다.”(p.60) 이때 일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구축적 자유의지는 과학의 발전 정도에 따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프로그램화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목적의 달성 앞에서 주저하는 탈구축적 자유의지는 “체계니 이론이니 하는 것들을 몽땅 물거품으로 만들어”(p.46)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지를 수학화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탈프로그램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말에 다름 아니며, 이는 수학적으로 부조리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2 \times 2 = 5$ 라는 공식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난다. 이 공식에는 공식을 “박살내는” 공식이라는 역설이 담겨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역설이 요구되는 것일까? 도스토예프스키의 인간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지하에서 쓴 수기』의 화자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는 가상의 독자에게 이렇게 묻는다. “어쩌면 인간이 지향하는 지상의 모든 목적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달성하려는 과정에 - 이를테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 있는 것이지, 2×2 는 당연히 4라는 공식과 다름없는 목적 자체에 있지 않다. 신사 여러분, $2 \times 2 = 4$ 라는 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의 시작이 아닐까?”(p.58) 사실 탈구축적 자유의지는 죽음을 죽이고 삶을 다시 살리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인간의 유한은 무한을 파괴하는 유한으로 무한하다. 역사성의 공간은 바로 이러한 역설에 토대를 두고 있다. 2016년 알파고와의 세기적 바둑 대결에서 이세돌이 대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지만, 위의 역설에 따르면 진짜 절망은 이제 더 이상 바둑을 둘 필요가 없는 알파고에게나 있을 뿐이다. 『지하에서 쓴 수기』에 등장하는 다음의 문구는 이 대국의 결과를 인간학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다.

인간은 경거망동한 존재인지라, 마치 장기 두는 사람처럼 목적 자체보다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만 사랑하는 것 같다.(p.58)

이처럼 『지하에서 쓴 수기』의 화자가 인간학적 환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한 지점은 탈구축적 자유의지다. 그리고 구축적 자유의지가 수학화될 수

있다면 탈구축적 자유의지는 이러한 수확화에 퍼부어대는 저주와 다른 것이 아니다. 지하생활자는 말한다. “인간은 온 세상에 저주를 퍼부어댄다. 그런데 저주를 퍼부어댈 줄 아는 존재가 오직 인간뿐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저주는 인간을 동물과 가장 뚜렷이 변별케 하는 인간만의 특권이다.) 저주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p.54) 여기서 저주는 언어로밖에 할 수 없는 너무나 인간적인 행위 곧 언어행위다. 저주는 인간을 동물과 변별케 할 뿐만 아니라 AI와도 변별케 하는 특권으로 남을 것이다. 요컨대 $2 \times 2 = 5$ 는 그저 잘못된 수식이 아니라 $2 \times 2 = 4$ 에 퍼부어대는 저주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하생활자가 자신을 수다쟁이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잘 들어보라. 우리와 같은 지하생활자는 입에다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 지하생활자는 사십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하에 처박힌 채 버틸 수 있지만 한 번 바깥으로 나와 폭발하면 실 새 없이 지껄여대기 때문이다.(p.64)

지하생활자는 수학적 존재가 아니라 실 새 없이 지껄여대는 언어적 존재다. 그는 자신을 『지하에서 쓴 수기』의 작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글을 쓰는 작가로, 말하자면 독자 없는 작가로 소개한다. 인간의 모든 삶이 빅데이터로 저장되어 수치화되는 오늘날 이 세상에 언어로 저주를 퍼부어 수 있는 사람이 작가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포스트휴먼 시대를 살아가는 휴먼으로서 우리는 『지하에서 쓴 수기』의 독자를 자칭해도 좋을 것이다.

3. ‘2+2’와 마지막 인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수식은 『지하에서 쓴 수기』에 등장하는 수식과 정확하게 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하에서 쓴 수기』에서 사용된 $2 \times 2 = 5$ 라는 수식은 $2 \times 2 = 4$ 라는 수식이 대변하는 자연과학으로 환원 불가능한 인간적인 요소, 말하자면 탈구축적인 저주의 언어를 상징한다. 『1984』에서는 이러한 수와 언어의 관계가 역전 현상을

나타낸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묘사한 과학적 이상주의 사회가 $2 \times 2 = 4$ 라는 수식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1984』에서 묘사된 전체주의 사회, 즉 영사(INGSOC)로 약칭되는 영국사회주의는 $2+2=5$ 라는 이데올로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전자가 유토피아적으로 봉쇄된 사회라면 후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봉쇄된 사회다. 주지하다시피 영사의 이데올로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신어(Newspeak)다.¹³⁾ 이러한 언어학적 전체주의에 맞서기 위해 이 소설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제시한 것이 $2+2=4$ 라는 수식이다. 『지하에서 쓴 수기』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이 $2 \times 2 = 5$ 라는 수식이었다면 이제 『1984』에서는 역설적으로 $2+2=4$ 라는 수식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앞장에서 우리는 『지하에서 쓴 수기』에서 전개된 인간학적 환원이 인간에게서 계산 가능한 것을 하나씩 걷어내면서 궁극적으로 계산 불가능한 것, 다시 말해 수학으로 환원 불가능한 인간적인 요소에 이르는 작업임을 살펴 보았다. 『1984』에서는 우리가 ‘언어학적 환원’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언어학적 환원이란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물질적이든 역사적이든 정신적이든 하나씩 걷어내서 순수하게 언어적인 존재로 환원하는 것을 가리킨다.¹⁴⁾ 여기서 언어는 물론 텔레스크린을 통해 전달

13) “신어(Newspeak)는 오세아니아의 공용어로서 영사(英社), 즉 영국 사회주의(English Socialism)의 이념적인 필요성에 의해 고안되었다.”(p.418) 1949년 출간된 조지 오웰의 『1984』에 담긴 디스토피아적 전망이 1932년에 출간된 올더스 헉슬리(A. L. Huxley)의 『멋진 신세계』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멋진 신세계』에 담긴 디스토피아적 전망은 1924년에 출간된 예브게니 자마틴(Evgenii Ivanovich Zamiatin)의 『우리들』로 거슬러 올라가고, 다시 『우리들』에 담긴 디스토피아적 전망은 1863년에 출간된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담긴 유토피아적 전망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풍자를 담은 『지하에서 쓴 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디스토피아 소설의 이러한 근대적 계보학에서 수의 지배에 대한 언어의 반란이라는 테마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에서 수의 지배에 맞서는 자는 시와 시인을 가까이하는 털복숭이 인간들이며 『멋진 신세계』에서는 독서를 즐기는 하층 계급이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묘사된 전체주의적 사회는 언어, 다시 말해 신어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인데 바로 이 점이 디스토피아 소설의 계보학에서 이 소설에 독특한 위상을 부여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2+2=4$ 라는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 소설의 이러한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 앞서 언급했듯이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에서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존재의

되는 메시지, 다시 말해 “절대적인 진리”와 “완벽함”의 결정체인 당의 언어를 말한다. “당의 예언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의 “강령이나 정치 노선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지배의 근본 원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지속적인 날조 행위”(『1984』, p.296)가 일상화되어야 하며 이는 당의 지배를 영속화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일례로 풍요부에서 초콜릿 배급량을 줄이지 않을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어느 시기부터 배급량이 줄었다면 이 약속이 공표된 모든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진리부 산하 기록국에서 근무하는 윈스턴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예컨대 언어학적 환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과정은 신문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 정기간행물, 팸플릿, 포스터, 전단, 영화, 녹음테이프, 만화, 사진 등 조금이라도 정치적·사상적 색채를 띠는 것이라면 문학이든 기록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에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매일 매순간 과거는 현재의 것이 되곤 했다. 이런 식으로 당이 예언한 모든 것들은 문서상으로 증명되고, 그때그때의 필요에 맞지 않는 기사나 의견은 기록에서 영구히 삭제되었다. 말하자면 모든 역사는 필요에 따라 깨끗이 지우고 다시 고쳐 쓰는 양피지 위의 글씨와도 같은 것이었다. 일단 그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허위가 섞여 있다고 주장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었다.(pp.59-60)

이 사회에서 기록은 세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당의 언어에 대한 기록이다. 당의 언어를 그대로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중사고이고 이 이중사고를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부록 「신어의 원리」에 잘 나타나있듯이 “신어의 고안 목적은 영사의 신봉자들에게 걸맞은 세계관과 정신 습관에 대한 표현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사 이외의 다른 사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p.419)

대상 영역에서 언어적인 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존재론적 환원”이라고 부른 바 있다.(supra 각주 11) 이와 반대로 『1984』에서는 존재론적인 것을 걷어내서 언어의 대상 영역만이 드러나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언어학적 전환’으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신어는 세계와 단절되어 지시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며 자신의 지배 하에서 사고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며 조정하는 언어다. 신어가 정신을 지배하는 이유는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작품에서 당의 대변인격인 오브라이언의 주장처럼 당의 말이 자연의 법칙마저 창조하고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세계인 것이다.

우리는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물질도 지배할 수 있네. 실재란 머릿 속에 있지. 자네도 차츰 알게 될 걸세. 우리가 못하는 건 없네. 눈에 보이지 않게 할 수도, 공중을 날 수도 있지. 그 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네. 원한다면 비누방울처럼 이 마루 위를 둥둥 떠다닐 수도 있지. 당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네. 자연의 법칙에 대한 19세기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만 하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창조하지.(p.370)

요컨대 『1984』에서 서술된 영국사회주의는 언어학적 전체주의 사회다. 이와 관련해 ‘유토피아로서의 공산주의’의 가능성을 천착했던 보리스 그로이스(Boris Groys)는 『코뮤니스트 후기』에서 소비에트 사회를 자본이 언어로 전환된 사회로 묘사하면서 이 사회의 특징이 그가 메타노이아(metanoia)라고 부른 언어의 변증법적 사용에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자본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면 코뮤니스트 사회는 언어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사회다. 이때 사용되는 말의 논리가 메타노이아라는 것인데, 그로이스는 이러한 논리의 작동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한다. “총체의 논리는 열린 논리다. 그것은 A와 -A를 동시에 받아들이며, 따라서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¹⁵⁾ 흥미롭게도 『1984』에서 영국사회주의 진리부 건물에 나붙은 당의 슬로건은 이러한 헤겔적 논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p.42)

15) 보리스 그로이스, 『코뮤니스트 후기』, 김수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7, p.66.

이렇게 본다면 오브라이언이 윈스턴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2+2=5$ 라는 공식은 위의 슬로건에서 표현된 변증법적 역설에 대한 숫자적 판본에 다름 아니다.¹⁶⁾ 전체주의는 하나의 전체가 온전히 성립할 때 작동하는 사회를 가리킨다. 수학적 전체주의의 경우에는 그것이 비진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온전한 전체를 성립시키지 못한다. 반면 언어학적 전체주의는 상기 진리부 슬로건에 잘 나타나있듯이 전쟁과 평화, 자유와 예속, 무지와 힘, 진리와 거짓 등 모순된 두 항을 동시에 ‘포섭’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그 로이스적 의미에서 하나의 전체를 온전히 성립시킬 수 있다.

『1984』의 주인공 윈스턴이 이러한 언어학적 전체주의에 맞서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성’이다. 물론 영사의 논리에 따르면 당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삶을 지배”하고 있듯이 인간성 역시 당의 지배하에 있다.

윈스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삶을 지배하고 있네. 자네는 우리가 하는 일에 분노해서 우리에게 반항하는 인간성이라 불리는 어떤 것을 상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성 자체를 창조해 낸단 말일세. 인간이란 무한한 신축성이 있는 존재이네. 자네는 노동자나 노예들이 봉기하여 우리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옛날식 생각을 하고 있을 걸세.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게. 그들은 짐승처럼 무력하네. 인간성은 곧 당일세.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p.377)

하지만 당에 대한 반역 행위와 사상죄를 저지른 대가로 애정부에 끌려와 인간 개조를 위한 온갖 고문과 협박을 당하면서도 스스로를 여전히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윈스턴은 인간성의 본질을 인간의 정신에서 찾는다. 윈스턴은 사상경찰과 열성당원의 지속적인 감시는 물론 도처에 설치된 텔레스크린의 눈과 마이크로폰의 귀가 자신의 신체와 행동을 작은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한다 해도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정신까지 꿰뚫어보고 바꾸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는 정신이야말로 인간성을

16) 윈스턴은 일찌감치 이를 예감하고 있다. “결국 당은 둘 더하기 둘은 다섯이라고 발표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 것이다. 조만간 당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리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그 같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p.113)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바로 이 정신 덕분에 당에 맞서 결국에 승리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다. 윈스턴은 “인간성이 곧 당”이라고 주장하는 오브라이언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친다. “당신들이 실패하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들이 정복할 수 없는 정신이랄까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pp.377-378) 작품의 초반부에 윈스턴이 발각될 시 사형에 처할 위험을 무릅쓰고 일기를 쓰기로 결심한 것은 무엇보다 이 원칙을 복원하기 위해서다. 진리부 기록국에서 일하는 그의 일과는 과거를 현재의 것으로 만들면서 역사를 소거하는 작업에 바쳐진다. 일과 후 집에 돌아와 일기를 쓰면서 그가 하는 일은 현재를 과거의 것으로 만들면서 역사를 구제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언어와 단절된 채 존재했거나 존재하면서도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세계에 가 닿고자 하는 정신의 저항이다. 이때 $2+2=4$ 는 저항의 정신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윈스턴은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자유이다. 만약 자유가 허용된다면 그 밖의 모든 것도 이에 따르게 마련이다.(p.114)

윈스턴에 따르면 $2+2=4$ 는 “자명한 것”이며, 자명한 것은 곧 진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기에 “보호받아야” 하고 “끝까지 사수”(p.114)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가 가혹하고 처절한 고문 행위 속에서도 $2+2=4$ 의 진리를 끝까지 고집하고자 한 것은 이 단순한 수식이야말로 인간성마저 당의 지배하에 놓인 이 전체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온전한 정신”(p.302)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그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채 수신자도 없이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일기를 꾸준히 써나갈 수 있었던 동력이기도 하다. 윈스턴은 자신의 일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후대의 인간에게 남겨줄 유산은 말을 들려주는 것보다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리라.”(pp.43-44)

하지만 그런 믿음과 신념에도 불구하고 편재하는 텔레스크린과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전방위적 감시가 자행되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외로운 유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줄리아를 만나기 전까지 윈스턴의 삶 역시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외로운 유령”(p.43)의 그것이었다. 흥미롭게도 오웰은 『1984』 2부에서 외로운

유령들 간의 연대 가능성을 탐색한다. 유령은 신체를 결여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말을 결여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외로운 유령인 윈스턴이 줄리아와 사랑하게 됐을 때 그들은 서로의 신체를 보고 만지고 느끼며 함께 말하고 서로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 때로 당에 대한 저항의 방식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면서도 그들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당에 일격을 가하는 정치적 행동”을 함께 하고, 무엇보다 사람의 속마음까지 지배할 수 없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처럼 $2+2=4$ 가 정신적인 진리를 대변하고 이 진리가 보편적이라면 바로 이 보편성에 연대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윈스턴이 무산계급인 노동자들에게 거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후일 언젠가 이들이 의식을 갖고 각성하게 되는 순간 도래할 연대의 가능성 때문이다.

언젠가는 저 힘센 여자의 배에서 의식을 가진 종족이 태어날 것이다. 당신은 죽은 사람이다. 그들이 미래의 사람이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 있는 육체를 지키듯 살아 있는 정신을 지켜서 2 더하기 2는 4라는 비밀 법칙을 전할 수 있다면 당신도 그 미래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p.307)

그러나 윈스턴이 줄리아와의 밀회 장소에서 이러한 희망으로 마음이 벽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 사상경찰이 난입하고 두 사람은 체포되어 애정부에 감금된다. 『1984』 3부는 사상범 윈스턴의 인간 개조를 위해 가해진 참혹한 고문의 기록이다. 그 고문의 끝에 오브라이언의 말처럼 모두 멸종되어버린 인간들 중 혼자 남은 “마지막 인간”, “인간 정신의 수호자”(p.379)는 전체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파멸하고 만다. 『1984』가 인간의 운명에 대한 가장 어두운 기록인 이유는 이 마지막 인간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인간성의 조건들이 철저히 파괴되기 때문이다. 애정부에서 감금된 외로운 유령은 결국 $2+2=5$ 임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자신의 유령성, 다시 말해 건전한 정신을 상실하고, 줄리아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사랑의 연대를 배반하기에 이른다. 생쥐인간이 지하에 숨듯이 외로운 유령은 텔레스크린의 감시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으로 도피한 인간이다. $2+2=5$ 라는 수식은 이러한 도피의 불가능성, 내면적 인간성의 상실을 뜻한다. 『지하에서 쓴 수기』에서 화자는 “혼돈, 암흑, 저주 등 이 모든 것까지 공식에 의거해 계산해낼 수 있는” 사

회, 다시 말해 “불합리한 모든 것을 차단하면 이성이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인간은 이성을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친 사람이 될 것”(『지하에서 쓴 수기』, p.54)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와 다르게 진리가 진리부의 소관 업무로 이첩된 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기 위해 빅 브라더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게 『1984』의 서늘한 진단이다. 즉, 수에 기초한 이성의 전체주의 앞에서 인간이 이성을 버리고 미쳐버린다면 언어에 기초한 광기의 전체주의 앞에서 인간은 이 광기를 사랑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비판하고자 한 것이 이 두 결과의 종합이다. 이를테면 이성이 자신의 극단에서 광기로 전환되고 사람들이 이 광기를 열렬히 추종하게 된 끔찍한 사회가 그것이다.

이처럼 철저히 비판적인 전망 속에서 인간의 희망을 논할 수 있을까? 소설 말미에 윈스턴은 자신의 최대 약점인 생쥐의 공격이라는 협박을 받게 되자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 줄리아를 배신함으로써 마음 속 간직하던 인간성을 저버리게 되고 그 대가로 마침내 애정부를 벗어나 다시 현실로 복귀하게 된다. 그는 한직이지만 직업을 가지고 예전보다 많은 보수를 받으며 거의 매일 체스넛트리 카페로 출근해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일 수는 없다. 애정부에 감금되었을 때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행위들”이 일어났고, “그 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죽었고, 불타버렸으며, 마비되어 버렸”(『1984』, p.407)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인간의 패배다. 하지만 앞서 『지하에서 쓴 수기』의 화자의 말처럼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면, 윈스턴이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알면서도 인간정신의 수호자로서 살아냈던 시간들은 마지막 인간의 사투의 기록으로 달리 읽힐 수 있다. 비록 소설의 끝 문장처럼 윈스턴이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는 마지막까지 저항한 마지막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4. '2+2=4'와 '보잘것없는 영웅'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하에서 쓴 수기』에서 $2 \times 2 = 5$ 라는 공식이 돌

벽에 저주를 퍼부어대는 실존적 인간을 대변하고 『1984』에서 $2+2=4$ 라는 공식이 전체주의 사회에 맞서 저항하는 마지막 인간, 다시 말해 정치적 인간을 상징한다면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 등장하는 $2+2=4$ 라는 공식은 인간성의 또 다른 양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소설은 조용한 해안도시 오랑에 갑작스레 창궐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고 수많은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페스트의 연대기다. 이 부조리한 사건을 한가운데서 겪어내며 자신만의 특별한 수기를 작성하기도 했던 타루는 이 소설의 화자이자 연대기의 저자인 리유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만, 이제 다시는 페스트에 전염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화를, 아니면 적어도 몇몇한 죽음을 바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페스트』, p.328) 이때 타루가 생각한 페스트가 무엇이든 간에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분명 윤리적 차원에 속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페스트라는 대재앙에 맞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원 보건대를 조직하는 데 앞장선 타루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하나는 재앙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자다.¹⁷⁾ 어쩌면 단순한지도 모르지만 타루에게는 분명 진실임에 틀림없는 이 존재론적 범주의 구분은 그 자체로 윤리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 두 범주 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페스트』에서 $2+2=4$ 라는 공식이 등장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질문의 맥락이다. 타루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보건대가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연대기의 서술자인 리유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교사가 둘에 둘을 보태면 넷이 된다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가 훌륭한 직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찬사를 던지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타루와 그 밖의 사람들이 구태여 둘에 둘을 보태면

17) “다만 나는 지상에 재앙과 희생자들이 있으니 가능한 한은 재앙의 편을 들기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렵니다.”(p.330)

넷이 된다는 것(그 반대가 아니라)을 증명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해두자. 그러나 또한 그러한 선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교사나 그 교사와 똑같은 마음인 모든 사람과 공통된다는 것도 말해두자. 그런데 인간의 명예를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가 많으며, 적어도 그것이 서술자의 신념이다. 하기가 그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서술자에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둘에 둘을 보태면 넷이 된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죽음의 벌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오는 법이다. 교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논리의 끝에 어떤 보상 또는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둘에 둘을 보태면 과연 넷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당시 자기네의 생명을 내걸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들이 페스트 속에 있느냐 아니냐, 페스트와 싸워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 해답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p.178)

흥미롭게도 상기 인용문에는 앞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질문, 즉 대재앙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카뮈의 생각이 $2+2=4$ 라는 간략한 수식을 통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 수식을 통해 서술자 리유가, 더 나아가 작가 카뮈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기에 이와 관련해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여기서 이 수식의 해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즉, 둘에 둘을 보태면 과연 넷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재앙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희생자의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그 해답을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리유, 타루, 그랑, 랑베르는 보건대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편에 서기로, 다시 말해 페스트와 싸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반면 코타르는 마치 페스트 덕분에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듯이 재앙의 상황을 오히려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런가 하면 오랑 시 의사회 회장 리샤르나 시장은 그러한 결정을 계속 유보한다. 물론 이러한 양자택일을 벗어나는 제 3의 범주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의사가 되는 길이다. 하지만 타루가 보기에 이 길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것이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다른 의

미에서의 제 3의 범주, 즉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이때 마음의 평화는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을 통해, “희생자들 편에 서서 그 피해를 되도록 줄이기로 마음먹는 것”(p.331)에서 얻어질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그것은 타루가 바라듯 “신 없이 성인”(p.332)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앞서 언급한 선택과 관련해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의 결과로 “어떤 보상이나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말하자면 최후의 심판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리유가 파늘루 신부와 벌인 논쟁에서 잘 드러난다. 파늘루 신부는 대재앙이 신의 심판이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설파하지만¹⁸⁾ 리유가 보기에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애 들마저 주리를 뜯도록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p.285) 오랑 시를 덮친 페스트는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 앞에 닥친 부조리한 상황일 뿐이다. 그 앞에서 각자가 행하는 선택은 그저 선택이기에 그 자체에 큰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리유는 자기 주변 인물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도 그저 무심하게 바라보고 쉽게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예컨대 오랑 시에 취재하러 왔다가 봉쇄 조치로 도시에 갇히게 된 기자 랑베르가 연인을 만나고자 도시에서 탈출하기 위해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리유는 이를 개인의 행복 추구로 간주하면서 동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물론 코타르에 대해서만큼은 그도 “두둔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¹⁹⁾, 그럼에도 시종일관 그의 행동거지를 담담하게 서술할 뿐 가치 평가는 최대한 자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을 거부하는 이러한 태도로부터 2+2=4라는 진리의 예사로움이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세속화 예찬』에서 조

18) 파늘루 신부의 주장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종우, 「파늘루 신부를 통해 본 알베르 카뮈의 종교관」,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46집, 2013, pp.31-60.

19) “그러나 시민들 중 적어도 한 사람만은, 의사 리유로서도 두둔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는 언젠가 타루가 리유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죄악은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속으로 시인했다는 점입니다. 그 외의 것은 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p.394)

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환속화와 세속화를 구분하면서 세속화가 성스러운 것을 소홀히 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한다.²⁰⁾ 이러한 세속화가 $2+2=4$ 라는 진리주장에 그대로 적용된다. 『세속화 예찬』에서는 이러한 세속화의 미학적 차원이 드러난다면 『페스트』에서는 그것의 윤리적 차원이 드러난다. 리유에 따르면 페스트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보건대에 헌신한 사람들, 예컨대 “타루와 그 밖의 사람들이 구태여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진리는 진리에 속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영웅주의와는 전적으로 무관한 것이다. 즉, 진리를 발견하는 즉시 그것을 가볍게 인정하고 꾸준히 행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커다란 외침 따위는 필요 없는 것이다. 랑베르가 오랑 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포기하고 되돌아와 보건대에 잔류하기로 했을 때 리유가 보인 담담함은 이러한 태도로 설명된다. 그럼에도 굳이 영웅이 필요하다면 그 영웅은 필시 “보잘것없고 존재도 없는 영웅”의 모습일 것이다. 예컨대 『페스트』에서 낮에는 시정 말단 직원으로서 자기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퇴근 후에는 개인적인 글쓰기라는 삶의 기쁨과 의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자기가 지닌 선의로, 주저함 없이” 보건대의 서기 역할을 맡은 그랑처럼 말이다. 리유가 보건대 활동에 대한 그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자 그랑은 놀라며 이렇게 말한다. “제일 어려운 일도 아닌걸요. 페스트가 생겼으니 막아야 한다는 건 뻔한 이치입니다. 아! 만사가 이렇게 단순하면 좋으련만!” 그랑의 말처럼 $2+2=4$ 라는 “뻔한 이치”를 예사롭게 받아들이고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조용한 미덕의 실질적 대표자”(p.180)로서 우리 사회의 영웅에게 요구되는 자질인 것이다.

그렇다, 인간이 소위 영웅이라는 것의 전례와 본보기를 세워 놓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반드시 이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의 영웅이 있어야 한다면, 서술자는 바로 이 보잘것없고 존재도 없는 영웅, 가진 것 이라고는 약간의 선량한 마음과 아무리 봐도 우스꽝스럽기만 한 이상밖에는 없는 이 영웅을 여기에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면, 진리에겐 그

20) 조르조 아감벤, 『세속화 예찬』, 김상운 옮김, 난장, 2010.

진리 본연의 것을, 둘 더하기 둘의 합에는 넷이라는 답을, 그리고 영웅주의에는 부차적이라는 본래의 지위, 즉 행복에 대한 강한 욕구 바로 다음에 놓이되 결코 그 앞에 놓일 수는 없는 그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면 이 연대기에도 그 나름의 성격, 즉 선량한 감정, 말하자면 두드러지게 약하지도 않고 또 흥행물처럼 야비하게 선동적이지도 않은 감정으로 이루어진 기록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p.184)

다소 거칠게 말해 『지하에서 쓴 수기』에서 $2 \times 2 = 5$ 라는 공식이 수에 대한 언어의 반란을 상징한다면, 『1984』에 등장하는 $2 + 2 = 4$ 라는 공식은 언어에 대한 수의 반란을 상징한다. 그런데 『페스트』에서는 저주나 저항이라는 이른바 반란의 테마를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작품에서 $2 + 2 = 4$ 라는 공식은 윤리적 진리의 예사로움을 나타내는 기호에 가깝다. 다시 말해 이 진리에 대단한 영예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데서 이 진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지하에서 쓴 수기』에서 상정된 이상사회는 과도하게 수확화되어 있고 『1984』에 등장하는 전체주의 사회는 과도하게 언어화되어 있다. 이러한 과도함에 맞서 생쥐인간은 저주의 언어를 퍼붓고, 마지막 인간은 수식으로 마지막까지 저항한다. 사실상 오랑시에 닥친 페스트도 대재앙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함에 대한 리유의 태도는 무심함에 가깝다. 그는 $2 + 2 = 4$ 를 유별나게 외치지 않는다. 그는 희생자와 대재앙이라는 양자택일에서 희생자의 편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자존심이나 열정이나 확신 때문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알랭 바디우(Alain Badiou)가 『사도 바울』에서 윤리적 주체에게 요구한 충실성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²¹⁾ 왜 페스트 환자를 돌보는 일에 그토록 헌신적인지를 묻는 타루에게 리유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마 자존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나는 필요한 정도의 자존심밖에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앞으로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는 무엇이 올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당장에는 환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고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21) 알랭 바디우, 『사도 바울』, 현성환 옮김, 새물결, 2008.

들은 반성할 것이고, 또 나도 반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긴급한 일은 그들을 고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미치는 데까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뿐이지요.”(p.171) 리유의 이런 태도는 아마도 타루가 매우 드물고 어려운 것으로 간주했던 제 3의 범주 곧 진정한 의사의 길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수 있다. 이 길은 분명 $2+2=4$ 의 진리를 선택한 길이다. 하지만 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리유가 그랬듯 진리가 진리 본연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페스트와 싸운 진리의 기록을 가벼이 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이 연대기가 결정적인 승리의 기록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기록은 다만 공포와 그 공포가 지니고 있는 악착같은 무기에 대항해 수행해 나가야 했던 것, 그리고 성자가 될 수도 없고 재앙을 용납할 수도 없기에 그 대신 의사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한 증언일 뿐이다.(p.401)

반복컨대 『페스트』에서 $2+2=4$ 라는 수식은 충실성을 요구하는 윤리적 진리를 대변한다. 즉, “둘에 둘을 보태면 과연 넷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예사로이 여기며 “꾸준히” 지켜나가는 일 뿐인 것이다. 이처럼 인간 행동의 동기 혹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 방점이 찍힌 인간관이야말로 부조리한 비극의 세계 앞에서 반항하는 윤리적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우리는 ‘ 2×2 ’와 ‘ $2+2$ ’라는 단순한 수식을 중심으로 『지하에서 쓴 수기』와 『1984』, 그리고 『페스트』를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작품에서 다루어진 인간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때 ‘ 2×2 ’와 ‘ $2+2$ ’라는 수식은 작가와 시대적 배경은 물론 담고 있는 메시지가 서로 다른 세 작품을 연결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토포스, 즉 여러 작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작품에서 반복 출현하는 이른바 ‘공통 장소들(common places)’에 주목해 그것이 각각의 작품에서 테마적으로 변주되는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은 비교 대상 작품들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는 동시에 그 논의의 내용을 입체적이면서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문학 연구를 위한 꽤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해 세 작품에 등장하는 수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간에 관한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다. 우선 『지하에서 쓴 수기』에서 인간은 무엇보다 목적이 아닌 과정으로서 정의된다는 것이다. 현대 기술과학의 총체인 AI가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면 인간은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목적의 실현을 두려워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2 \times 2 = 5$ 라는 지하생활자의 외침은 목적으로 끝나는 삶을 과정으로 되돌리기 위한 절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우리가 인간학적 환원을 통해 드러낸 탈구축적 자유의지가 행하는 바는 이른바 끝을 끝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과학적 이상사회에 역사성을 부여함으로써 유토피아적 봉쇄를 푸는 작업과 다르지 않다. 한편 『1984』에서 윈스턴 스미스가 보여준 저항의 의미는 그것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봉쇄에 맞서 끝까지 마지막 인간으로 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저항의 과정에서 찾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페스트』의 화자 리유가 남긴 연대기는 페스트라는 부조리한 대재앙 앞에서 보잘것없고 존재감도 없는 영웅들이 매일 매순간 $2+2=4$ 라는 예사로운 진리를 충실히 살아낸 과정의 기록이다. 요컨대 실존적 인간이 피부는 $2 \times 2 = 5$ 는 과정의 역사성을 상징하고, 정치적 인간이 기록한 $2+2=4$ 는 과정의 저항성을 나타내며, 윤리적 인간이 선택한 $2+2=4$ 라는 진리는 과정의 충실성을 드러낸다.

휴먼이 트랜스 휴먼을 거쳐 포스트휴먼으로 이행하는 특이점이 다가온다고 얘기되는 오늘날 그와 다른 또 다른 특이점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전히 휴먼이 감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상주의적이든 이데올로기적이든 전체주의의 위협에 맞서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대재앙의 위협 앞에서 매번 피해자 편에 서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역시 휴먼의 몫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세 편의 작품은 포스트휴먼 시대 휴먼의 물음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고전이 지닌 현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중우, 「파늘루 신부를 통해 본 알베르 카뮈의 종교관」, 『프랑스문화예술 연구』 제46집, 2013.
-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 『무엇을 할 것인가?』(상)(하), 서정록 옮김, 열린 책들, 2009.
- 르네 데카르트, 『성찰』,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7.
- 마르쿠스 가브리엘,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김희상 옮김, 열린책들, 2017.
- 막스 호르크하이머, 테오도르 W.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1.
-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최성만 옮김, 길, 2017.
- 보리스 그로이스, 『코뮤니스트 후기』, 김수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7.
- 석영중,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와 신경과학자: 자유의지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 41집, 2012.
- 알랭 바디우, 『사도 바울』, 현성환 옮김, 새물결, 2008.
- 알베르 카뮈, 『페스트』, 김화영 옮김, 민음사, 2011.
- 조르조 아감벤, 『세속화 예찬』, 김상운 옮김, 난장, 2010.
- 조지 오웰, 『1984』, 정희성 옮김, 민음사, 2003.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지하에서 쓴 수기』, 김근식 옮김, 창비, 2012.
-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한국포스트휴먼 연구소 편저,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아카넷, 2016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한길사, 2017.
- Balzac, Honoré de, *Séraphita*, La Bibliothèque électronique du Québec, coll. « À tous les vents », vol. 1095 : version 1.0.
- Curtius, Ernst Robert, *European Literature and the Latin Middle Ages*, translated by Willard R. Trask, Harper Row, 1953.
- De Pater, Wilhelmus Antonius, *Les topiques d'Aristote et la dialectique platonicienne. La méthodologie de la définition*, éd. St. Paul, 1965.

- Green-Pedersen, Niels Jørgen, *Tradition of the Topics in the Middle Ages*,
Philosophia Verlag GmbH, 1985.
- Hugo, Victor, *Napoléon Le Petit* (1851), Edition du groupe « ebooks libres
et gratuits ».
- Miller, Carolyn R., “The Aristotelian Topos: Hunting for Novelty”, in *Rereading
Aristotle’s Rhetoric*,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0.
- Smith, Robin, *Topics Books I and Viii: With Excerpts From Related Texts*,
Clarendon Press, 1997.

❖ ABSTRACT

Some questions on humanity raised through mathematical formulae: with special focus on *Notes from Underground* by Dostoevsky, *1984* by Orwell, and *The plague* by Camus

Junga SH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ng Ho CHO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is paper, the theme that we would like to deal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iterature is related to the question of humanity, which is supposed to be raised through the following three works: *Notes from Underground* by Dostoevsky, *1984* by Orwell, and *The Plague* by Camus. To address this question, we would like to put a special focus on the mathematical formulae that appear in common in these three works. In *Notes*, while $2 \times 2 = 4$ refers to a constructing principle of the ideal society represented by the Crystal Palace, $2 \times 2 = 5$ symbolizes the curse on this society, i.e., a kind of speech act that is based on man's desire to deconstruct. In *1984*, the addition $2 + 2 = 4$ stands for the human spirit resisting the totalitarian ideology that imposes the formula $2 + 2 = 5$. In *The Plague*, $2 + 2 = 4$ is a truth that should be considered simply ordinary, as soon as determined as such. In *Notes*, the human is a being that delays the realization of a goal or destroys the goal, in order to reassign historicity to the process of life. In *1984*, the human is described as a spiritual being who persistently refuses to surrender, even though he or she ends up in failure. In *The Plague*, the human that has determined $2 + 2 = 4$ is a being faithful to this determination. To conclude, in those three works, the human is viewed in common as a being who is engaged

in an endless process of historical order. In other words, he or she is nothing but an infinitely finite being who is committed to endlessly rewriting his or her own history.

Key Words : *Notes from Underground, 1984, The plague*, human, topos, mathematical formulae

- 논문접수일 : 2019. 11. 10
- 심사완료일 : 2019. 12. 01
- 게재확정일 : 2019. 12. 03